

교회 소식

1. 환영합니다

- 언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-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*우리교회는 어린 아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.**
조금 소란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 앞좌석에 앉아서,
좀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.

2. 광고

- ① 지난 주일 공동의회에서 임직자 투표를 했습니다.
장로 3인, 안수집사 4인이 피택되었습니다(가나다 순)
(1)장로 - 김명중, 송영욱, 이병로
(2)안수집사 - 김형건, 박준석, 이철영, 천명재
- ② 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안수식은, 내년(2024년) 4월 봄노회 이후,
적절한 일자를 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.
- ③ 10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
- ④ 군입대 - 김하민

대한예수교
장로회

언약교회

COVENANT COMMUNITY CHURCH

섬기는 이 / 목사-조호진, 김수창 / 전도사-김숙영, 김현선, 이선민
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48길 56 현대아파트상가 3층
☎0507-1358-7760 <http://www.unyak.org> <제25-45호 / 2023년 11월5일>

말씀이 깊고 풍성한 교회

은 성도가 믿음과 섬김으로 "제자삼는 제자"가 되는 교회



온라인
연담

국민은행 206001-04-148 682 (예금주/언약교회)
신한은행 100-032-008 667(예금주/언약교회)
우리은행 1005-901-708 982 (예금주/언약교회)
우리은행 1005-202-531 785 (예금주/언약교회)
농협 355-0070-8191-13 (예금주/언약교회) 신협 131-021-333882 (예금주/언약교회)

봉사
안내

	이번 주(11/5)	다음 주(11/12)
설거지	양승욱, 유 일, 박민서	이은수, 박준석, 구예찬
오후통독	유 일(고린도후서 5-6장)	정순규(고린도후서 7-8장)

주일	유·초등부	오후 1시 30분
	중·고등부	오전9시45분 / 오후 1시
	주일예배	오전11시 // 오후1시30분
주중	<아침예배>	오전9시30분(월-금)
	성경공부	주중 저녁 7시30분

주일 예배 순서

인도 : 조호진 목사

-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일어서서
- 사도신경 일어서서
- 회개와 감사 기도 일어서서
- 찬양 찬송가 80장 "천지에 있는 이름 중" 다함께
- 대표기도 김선영
- 성경봉독 마태복음 22장 34-46절 말씀 박혜정
- 말씀 『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』 조호진
- 결단의 기도 다함께
- 광고 및 성도의 교제 다함께
- 찬양 "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" 다함께
- 축도 조호진 목사

- ▣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
- ▣ 예배 후 점심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

		다음 주(11/12)	2주 후(11/19)
예배 위원	대표 기도	문은지	김상현
	성경 봉독	김태선	박준석

성경 본문 마태복음 22장 34-46절 말씀(개역개정판)

마태복음 22장 34-46절 말씀

<1>

- 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
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
- 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
-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

- 37 예수께서 이르시되
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
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
-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
-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
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
-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

<2>

①

-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
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
-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
누구의 자손이냐
대답하되
다윗의 자손이니이다

②

- 이르시되
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
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
-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
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
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
-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
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
- 46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
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